

Hölderlin의 Hyperion 研究

—教養小説에서 哲學小説에의 交替를 위한 考察—

李 榮 久

Eine Studie über den Roman Hyperion Hölderins

Eine Forschung, um den philosophischen Roman mit dem Bildungsroman zu wechseln—

Lee, Yung koo

< 차 례 >	
1. 緒 言	4. 書簡體形式이 Hyperion에 미친 効用性
2. Bildungsroman과 Hyperion과의 關係	5. 結 言
3. 哲學小説로서의 Hyperion	參考文獻

Zusammenfassung

Der Roman Hyperion wurde der erste Band im 1797, der zweite im 1799 herausgeben, der in Hölderlins Dichtenleben der einzige ist. Hölderlin behandelte die Themen in Hyperion, welche die Sehnsucht nach dem alten Griechenland. Er begriff im alten Griechenland, Heras, den freiesten Spielraum für die Entfaltung idealischer Persönlichkeiten, kraftvollen Denkens und menschlicher Handlung.

Nun wissen wir noch, daß manche Literaturforscher den Hyperion einen Bildungsroman nennen, warum der Dichter die Idee der Jugend jener Tage darstellt, welche so unter mannigfachen Lebenserfahrungen heranreife.

Ich will aber in meinem Aufsatz den Hyperion als den philosophischen Roman betrachten, denn der Roman Hyperion ist ebenso philosophisch wie Nietzsches Zarathustra und jener wirkte auf den Zarathustra von der Form bis in die Grundidee.

1. 緒 言

Friedrich Hölderlin은 73年間이란 긴 生涯에서 作品을 쓸 수 있었던 期間은 尙각 16年 程度에

불과하다.¹⁾ 이 짧았던 期間에 그는 여러 詩型에 걸친, Gesang-Oden-Elegien-Hymnen等 珠玉같은 詩作品을 썼고 哲學的, 美學的 論文을 썼고 그의 文學과 思想과 生涯를 말해주는 書簡들, 그리스의 古典作品의 두 翻譯, 그리고 未發表의 戯曲 Empedokles 한 篇과 唯一한 小説 Hyperion을 남겨놓고 있다.

小説 Hyperion은 2部作으로 1777年과 1779年에 각각 出版한 作品으로서²⁾ 그의 作品系譜에서 보면 初期에 屬하지만 Hölderlin은 이미 이때 習作期와 一聯의 讚歌期를 거친 時期, 即 Klopstock와 Schiller의 影響에서 벗어나 그의 獨自의인 Stil을 形成하고³⁾ 文學과 思想的인 世界가 擴充된 時期에 쓰여진 作品이다. 그러므로 Hölderlin의 文學과 그 思想을 全般的으로 把握하는데 있어서 小説 Hyperion은 비교적 合當한 作品이라 하겠다. 더우기 小説은 詩作品보다 그 內容의인 包容性이 크고 더 具象的이기 때문에 그리고 詩人의 思想이 훨씬 풍부하게 形象化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Der Eremit im Griechenland(그리스의 隱遁者)라고 副題를 붙인 小説 Hyperion은 터어키 壓政下에 있는 1770年代의 그리스를 救援하려고 하는 한 青年의 人生遍歷을 통해서 現世의 墮落한 人間性을 깊이 省察하고 救援의 理念에 이르는 過程, 即 위대했던 古代 그리스를 이룩한 그리스 精神(Geist zur Heras)에의 復歸, 人間은 神과 自然에의 對立的인 存在로서가 아니라 그것들과의 調和에서 享受되는 英雄的인 힘을 바탕으로 하여 비로소 人類의 諸理想의 實現을 豫言하려고 하는 이른바 古代 그리스의 憧憬을 主題로 하고 있다.

Hölderlin은 當代의 Goethe와 Schiller로 代表되는 古典主義와 새로운 文學的인 意氣로 湧쳐진 浪漫主義의 潮流에 依하여 世上에서 거의 白眼視 당하다싶이 했고 더구나 Hölderlin의 未來의인 豫言的인 文學을 쉽게 理解할만 時代가 아니어서 半世紀 너머 沒覺된 狀態에 있었다. 그러나 19世紀의 末에 이르러 哲學과 思想의 變調 그리고 政治와 社會의 激動을 맞이함으로써 Hölderlin 文學의 面貌가 들어나기 시작한 것이다.⁴⁾ 그後 Hölderlin은 궁핍과 좌절속에서 그리고 끝내 意識을 잃은 40年餘의 不遇한 人生의 終末에 이르러 그의 文學과 思想은 수많은 文藝學者와 批評家들의 論文과 評說이 잇달아 發表되었고 小説 Hyperion에 있어서도 그 思想的인 解釋과 研究는 넘치고 있다.

그러나 Hyperion의 小説的인 性格에 대하여서는 W. Dilthey가 Hyperion을 教養小説(Bildungsroman)이라고 言及한 以來 既往의 研究와 評說에는 이에 對한 깊은 計議가 없었고 通說처럼 教養小説로 받아 들이고 있다. 教養小説이라하면 勿論 教養性이 강한 小説作品, 또는 教養을 目的으로한 小説)쯤으로 常識的인 理解로서 단순히 생각될 수 있겠으나 教養小説—Bildungsroman이란 하나의 性格的인 <genre>를 指稱하기 때문에 우리는 常識的인 限界를 넘어서 생각해야 하고 특히 小説 Hyperion의 경우엔 教養的(ausbildisch)인 image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자칫 本質的인 主題 意識을 隱蔽해 버릴 우려가 있다.

- 1) Hölderlin의 最初의 詩는 1784年 Denkendoerf의 神學生 時節의 것이고 1805年 Pindalos의 翻譯이 끝 作品이지만 (21年間)本格的인 作品活動은 1788年 Tübingen의 Stift 時節을 出發로해서 16年間 정도임.
- 2) 小説 Hyperion은 Schiller의 主선으로 1797年에 第1卷이 第2卷은 1799年에 出版되었으나 그 初稿는 Tübingen의 後半期인 1793年에 起稿했던 것으로 推定되고 있으니 出版된 完稿까지는 5年이란 時日이 所要되고 있다. 本稿는 主로 出版한 完成稿를 對象으로 하였음.
- 3) B. Boesch: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in Grundzügen. 한국독문학회譯 서울. S. 401.
- 4) 1874年 W. Winderband의 論文 (Über Friedrich Hölderlin und seine Schicksal)이 發表된 것이 그에 關한 本格的인 評論임.

本稿는 Hyperion의 小說의인 性格을 究明하기 위하여 Hyperion을 分析하고 Hyperion에 形象化되어 있는 Hölderlin의 思想을 抽出하여 이를 단순한 教養의인 側面에서 <教養小小說>이란 通說속에 그대로 放置 하기보다 獨逸文學의 傳統의인 Bildungsroman과 Hyperion의 小說의인 性格 그리고 Hölderlin의 目的 意識을 究明하여 Hyperion의 本質을 直說的으로 傳達할 수 있는 가장 適切한 genre를 부여하려고 試圖한 것이다.

2. Bildungsroman과 Hyperion과의 關係

小說 Hyperion은 書簡體形式으로 쓰여진 小說作品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作品의 內容을 一括하여 指稱하는 小說의인 性格이나 genre를 Bildungsroman 이라고 하는데 論者들은 한결같이 同意하고 있음을 본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小說 Hyperion을 正當하게 理解하고 評價하려고 하면 Bildungsroman에 對한 概念을 正確하게 把握하고 Hyperion을 Bildungsroman으로 規定하는 根據를 찾아 그 適否를 檢討해야 할 必要性이 있다. Bildungsroman은 뜻 그대로 教養小小說이라고 풀이되어 있고, 이미 世界文學의 한 類型으로서 유럽 文學史에 오랜 傳統을 지니고 있어서 各國마다 그 類例를 널리 구할 수 있다. 그러나 Bildungsroman이란 獨逸語의 名稱이 世界的으로 通用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 되듯이 Bildungsroman은 獨逸文學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Bildungsroman의 傳統은 中世의 叙事詩인 <Parzival>⁵⁾ 까지 溯及하여 系列을 지우는 學者도 있지만 대체로 Novalis의 Opterdingen⁶⁾, Jean Paul의 Hesperus,⁷⁾ Goethe의 Wilhelm Meister⁸⁾를 거쳐서 今世紀의 Thomas Mann의 Zauberberg과 Hermann Hesse의 Das Glasperlenspiel에 이르는 一聯의 우수한 獨逸小說들이 그 系列을 이루고 있으나 가장 模範的이고 Bildungsroman을 意識한 作品으로서 Goeth의 Wilhelm Meister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Wilhelm Meister는 바로 Bildungsroman을 說明하는 Model로 引用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Bildungsroman의 概念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그 구체적인 概念을 모두 言及할 수 없지만 一般化된 定義를 간추려보면 <한 人間이 그를 둘러 싸고 있는 人間的, 文化的 環境과의 相契속에서, 卽 自我(Ich)와 世界(Welt)와의 부단한 折衝속에서 個體로서의 自我를 發見해 가면서 自身의 內面的인 意識이 形成 되어 나가는 過程을 그린 小說形式>⁹⁾ 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좀더 敷衍하면 人間은 環境과 밀접한 關係下에 있고 그 속에서 여러가지 經驗을 쌓아 成長해 간다. 對人間, 對社會에서, 그리고 物的 關係와 文化的 關係를 통해서 肉身이 成長하고 精神의 內面化가 이루어져 가는 狀況을 文學的으로 形象化 시킨 作品이 곧<教養小小說>이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다.

- 5) 1220年로 推定되는 Eschenbach의 長篇叙事詩 Parzival의 冒險과 成功談으로서 騎士修業을 通하여 人間의 人格形成을 主題로 한 것. 教養小小說의 가장 最古의 것으로 學論한다.
- 6) Novalis의 代表作인 Heinrich von Opterdingen은 獨逸浪漫主義文學의 象徴的인 小說임. 꿈에 본 푸른꽃의 理想을 찾아 現實의 苦惱를 經驗하여서 目的에 이른다는 것이 그 主題.
- 7) 1886年에 獨自의인 文學을 개척한 小說家인 Jean Paul의 作品, Hesperus는 牧歌的 生活을 憧憬하고 現實과 虛構를 告發하는 批判的인 作品.
- 8) Goethe의 老年에 完成한 代表的인 Roman임 1796年에 Wilhelm Meister Lehrjahre가 쓰여지고 오랜 後에 Wilhelm Meister Wanderjahre가 1829年에 完成하였음. Wilhelm을 둘러싼 3代의 人生行路를 엮음. 방대한 Roman으로서 多小 지나친 虛構性이 없지 않으나 市民的인 人間形成을 Thema로 한 教養小小說의 Text格인 小說임.
- 9) Fritz Martini: Der Bildungsroman, zur Geschichte und Theorie des Wortes, S. 24. Verlag D. V. J. H. Berlin, 1961.

그러므로 Bildungsroman은 小說文學을 통해서 人間을 教化하고 精神的인 成長을 啓導하려고 하는 人本主義(Humanismus)에 目的을 둔 小說의 한 genre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小說 Hyperion을 어떤 觀點에서 Bildungsroman이라고 하며 그 論據는 어떤 것인가? Wilhelm Dilthey는 일찍이 Hölderlin이 世上에 理解되지 않았을 때 그의 文學을 認定하고 그를 一躍 Goethe와 같은 位置에 올려놓은 論文(Friedrich Hölderlin)에서 Dilthey는(Der Roman Hyperion)의 冒頭에 Hyperion을 Bildungsroman의 系列로 보고 이렇게 言及하고 있다.

Der Hyperion gehört zu den Bildungsromanen, die unter dem Einfluß Rousseaus in Deutschland aus der Richtung unseres damaligen Geistes auf innere Kultur hervorgegangen sind.¹⁰⁾

Dilthey는 여기에서 Rousseau의 影響을 지적하고 <內面的 教化를 目的하고 있는 當時의 精神의 方向에서 生成된> 것이라고 하였으니 Bildungsroman은 分明히 Humanismus에 立脚한 <目的論的 文學>¹¹⁾ 임을 말해준다. 그의 論據를 좀더 詳히 보면

<Wilhelm Meister와 Hesperus 以來 이들 小說은 모두 當時의 青年들을 描寫하고 있다. 青年은 幸福한 黎明期에 生의 첫발을 내디디면서 넓은 世上에서 同志를 구하고 友情을 맺고 戀愛를 한다. 그리고 곧 이 世上의 非情한 現實과 싸우고 多樣한 生活經驗을 겪는다. 그리고 成長해가면서 自己自身을 發見함으로써 이 世上에서 해야할 自身의 使命을 確認하게 되는 것이다. Goethe에게 부여된 課題는 修養에 依하여 活動의 領域에 이르는 한 個體의 發展史이며 두 浪漫作家인 Novalis와 Tieck의 Thema는 詩人이었다. Hölderlin의 主人公 Hyperion은 全一의 人 것에 作用하려고 努力하였다가 마침내 自身의 영역을 發見하고 思惟와 詩作으로 돌아온 英雄의 人 人間을 그린 것이다. 따라서 教養小說은 私生活의 利害범위에 局限된 教化의 個人主義를 表現하려는 것이다.>¹²⁾

이 Bildungsroman의 論旨에 따라 그 構圖의 要件을 3段階를 간추릴 수 있겠다. 1) 主人公은 搖籃期를 떠난 青年으로서 自身의 立志를 세워 外部世界에 나아가 이를 求한다. 2) 青年은 外部 世界에서 온갖 經驗을 쌓아 가면서 人生을 遍歷한다. 그리하여 內面을 意識하기에 이르러 드디어 自我를 發見하게 된다. 3) 自我를 意識한 個體는 人間의 根本理念을 自覺하게 되고 비로소 主體와 客體, 即 世界에 作用할 수 있는 能力을 갖는 成年으로 成熟한다. 이것을 文學辭典에는 <한 人間이 定해진 生의 形成에 이르기 까지의 그 靈魂의 發展過程을 表現한 Roman>¹³⁾ 이라고 간단히 要約하고 있다.

小說 Hyperion이 以上의 3段階의 要件과 어떤 緣故를 갖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小說 Hyperion에서 主人公의 行跡을 간략하게 살펴보아야 하겠다.

그리스의 青年 Hyperion은 스승인 Adamas에게서 榮光에 빛나는 祖國의 歷史觀에 感化를 받고 土耳其의 壓制下에 신음하고 있는 祖國을 苦憫한다. 그는 見聞을 넓히기 위하여 그리스와 文

10) W. Dilthey: Erlebnis und Dichtung, B. G. Tuenber Verlag, Stuttgart, 1959. S. 249,

11) 小說을 <存在論的>인 形態와 <目的論的>인 形態로 分類하여 보는 批評方法, 即 教養小說은 作者가 人生의 目標로서 人間의 內的, 外的인 갈등과 그 展開를 目的으로하여 그린는 小說이라고 함. 西洋文學의 諸相 比較文學 7卷, 東京大學出版局, 1974.

12) Ibid. S. 249

13) Merker. Stammler: Reallexikon Literatur, p. 232. Walter Verlag, Berlin, 1925. S. 141

化遺跡을 遍歷한다. 그는 아름다운 自然과 위대한 文化遺産들 속에 아직도 祖國의 榮光이 숨쉬고 있음을 보고 未來의 希望을 갖는다. 어느날 그는 行動的인 青年인 Alabanda를 만나 意氣投合하고 同志가 되려고 한다. 그러나 Alabanda의 너무나 急進的이고 暴力的인 目的爭取에 失望한다. Hyperion은 親舊의 초대를 받아 Karaurea 섬을 찾아갔다. 거기서 古代 그리스 美와 靈魂의 化身과 같은 Diotima를 만난다. 둘은 精神的으로 一體가 된다. 이때 Alabanda에게서 편지가 온다. 러시아와 土耳其의 戰爭勃發을 계기로 祖國의 解放戰線에 參加할 것을 촉구한다. Hyperion은 Diotima와 이별하고 出征하였다. 그러나 몇 차례의 勝戰에 兵士들은 軍律을 離脫하고 私利와 약탈에 淪될 뿐이다. Hyperion의 失望은 컸다. 그는 負傷하였다. 故鄉으로 돌아가 이제 Diotima와의 幸福을 求하려고 하였지만 그녀는 이미 世上에 살아있지 않았다. 失意을 안고 放浪길을 떠나 독일에 왔다. 그의 눈에 비치는 독일의 文化는 荒廢하기만 하다. 그는 人間性을 喪失한 獨逸人을 告發한다. 그러나 自然의 아름다움에 滿足하고 獨逸사람들이 自然을 理解하고 自然에 和合할 때 다시금 未來의 希望을 내다 볼 수 있다는 것을 示唆하고 강조한다.

여기서 主人公 Hyperion의 行跡을 點綴式으로 예거해서 Bildungsroman의 3段階의 要件들과 對比하여 보면 1)主人公·Hyperion은 青年의 氣概를 닮아 祖國의 運命을 苦悶하고 解放을 決心함으로써 現實的인 理想을 形象化하고 있다. 2)古代 그리스의 遺跡에의 遍歷, Alabanda와의 友情과 갈등, Diotima와의 사랑, 解放戰線에의 行動的인 體驗等을 通하여 Hyperion은 現實과 理想속에서 自我를 發見하기에 이르렀고, 3) Hyperion은 마침내 外部的인 意識이 內面으로 凝結되어 詩人의 思维에 도달한다. 그리하여 隱遁者가 됨으로써 이 모든 體驗을 Bellarmin에게 述懷 할 수 있는 詩人에 定着한 것이다.

Hyperion erwuchs auf demselben Boden. Das erste Fragment hob ausdrücklich hervor, daß die Bahn, die der Mensch vom Zustand der Einfalt zu dem der vollendeten Bildung durchläuft, in jedem Individuum die wesentlich gleiche sei. Aber für Hölderlin ging aus seinen Erfahrungen ein neuer Zug des Lebens auf, der dem bisherigen Bildungsroman ganz heterogen war¹⁴⁾

다시 Dilthey의 말을 들어보면, <人間은 素朴한 狀態에서 원만한 教養에 이르는 過程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 다른것 같으나 本質的으로는 同一하다>고 그는 指摘하고 特히 Hölderlin의 경우에 있어 注目할만한 論評으로 <在來의 教養小説과는 전혀 關聯지을 수 없는 새로운 樣相이 그의 經驗에 依하여 열리게 되었다>는 點에 筆者는 특히 留意하고자 한다.

우리는 한 作品에 대하여 너무 問題性을 가지고 보려고 함으로써 作品 속에 있는 순수하고 素朴한 藝術性을 看過하기 쉬운 反面에 한 作品이 가진 問題性을 獨自的인 特性으로 抽出하려는 努力보다 近似한 類型을 찾아 系列化하고 概念的인 判斷으로써 作品全體를 評價하는 경우를 또한 볼 수 있다. 하물며 Hölderlin 같이 當代에 理解되지 않았던 作品에 있어서라. 이러한 觀點에 미루어 小説 Hyperion을 단순히 概念的으로 裁斷해서 지극히 包括的인 小説의 意味로 보여지는 Bildungsroman이라 指稱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作品의 特性인 未來的인 問題性과 哲學的인 思想性을 看過하거나 誤解될 염려가 있는 것이다. 비록 獨逸의 散文文學이 傳統的으로 教養과 教化를 理想으로 하고 있다는 點에서 Hyperion을 Bildungsroman이라고 일컬어 不當할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皮相的이라 하겠다.

獨逸의 Bildungsroman의 求心點은 Wilhelm Meister에 있다. Goethe는 이 作品을 써서 독일에

14) Ibid. S. 250.

서의 Bildungsroman을 확립하였으리 이로써 以後 獨逸의 小說文學에 <Bildung>의 脈絡을 심어 놓은 것이다. 古典主義의 大宗인 Goethe가 Wilhelm Meister와 같은 教養 小說을 意圖한 緣由가 무엇일까?

Goethe는 18世紀에 市民社會의 成立을 確認함으로써 市民(Bürgertum)에 대하여 人間性(Humanität)의 教化를 絶실하게 생각하였다. 當時 市民社會는 이미 Rousseau의 啓蒙主義思想을 경험하고 그리스인 人文思想에 눈을 뜨고 있어서 Goethe는 Bildung = <Paideia = 人間形成>이란 目的意識을 가지고 Wilhelm Meister¹⁵⁾를 썼다고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Wilhelm Meister의 行脚을 간략하게 보고서 小說 Hyperion과 比較해 보아야 하겠다.

Wilhelm은 富裕한 商家에 태어나 父業을 이을 것을 慈憑받지만 일찍 女優 Maliane를 알게 되어 演劇에 立志할 것을 決心하고 出家한다. 그는 流浪劇場에서 시작, 여기 저기를 遍歷하고 藝術과 市民社會의 明暗을 두루 經驗 한다. 그는 初期에 Maliane의 背信을 甘受하고나서 演劇藝術에다 自身の 理想을 심는다. 그러나 이 社會階層에도 市民生活의 斷面을 보듯이 金錢의 弄絡을 받는다. 그는 그가 引率하게 된 劇團에서 몇번이나 座折을 겪어야 했고 그 過程에서 人間의 복잡한 裏面과 그 因果를 經驗한다. 그는 市民社會의 階層을 體得하고 마침내 眞正한 市民으로서의 人間性을 自覺하기에 이르고 理想의 社會를 위한 뜻을 세운다.

以上에서 Goethe의 Wilhelm Meister와 Hölderlin의 Hyperion을 놓고 그 共通分母를 찾아보면 1)青年期の 두 사람은 內的인 發展을 希求하여 平凡한 世俗의 生活과 人間을 拒否하고, 世界를 經驗의 對象으로 한다는것. 2)外部의 다양한 經驗을 쌓으면서 점차로 人間性을 自覺하고 內面的인 發展에 이르는 것. 3)外部와 內面을 克服하고 眞實한 自我의 實在을 認識하고, 自身에 定着하는 것으로 集約된다.

結論的인 말을 하면 Wilhelm과 Hyperion, 이 두 作品은 成年에 이르는 過程 속에 담긴 經驗的인 事例에서 共通의 性向을 看取하고 이를 同一한 Kategorie속에 묶어 놓으려고 하지만 그 內面을 보면 두 作品은 根源的으로 異質의 作品인 것이다. Wilhelm Meister는 市民性의 教化를 意識한 作品인데 反하여 Hyperion은 人間과 世界의 理念을 教化 하려는 것이다. 이 教化 = (Ausbildung)란 同一한 概念을 가지고 곧 두 作品은 同質性이라고 飛躍할 수는 없다. 여기에 두 作品을 단편적이거나 比較하여 보자. 먼저 Wilhelm은 <演劇의 教養性>에 대하여 Werner에게 便紙로써

Er (=der Bürger) darf nicht fragen: "Was hast du?" Welche Ansicht, welche Kenntnis, welche Fähigkeit, wieviel Vermögen?" Wenn der Edelmann durch seine Person alles gibt, so gibt der Bürger durch seine Persönlichkeit nichts und soll nichts geben. Jener darf und soll scheinen; dieser soll nur sein, und was er scheinen will, ist lächerlich oder abgeschmeckt. ¹⁶⁾

市民에 對한 철저한 市民性을 말하고 있다. 市民은 演劇 속에서도 貴族의 性向과 區別되어서 市民은 <人品을 통해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며 아무것도 제시하지 말아야 할 것을> Goethe는 吶喊하고 있다. 그러나 Hölderlin은 臨終의 Diotima를 통하여 存在에 대하여

Ich werde sein; ich frage nicht, was ich werde. Zu sein, zu leben, das ist genug, das ist

15) Goethe는 이 小說의 題目의 Meister에서 떨어져 徒弟—遍歷—巨匠의 發展段階를 말해 주고 있다.

16) Goeths Werke, Bd. VII, hrsg. von Erich Trunz, Hamburg, 1962. S. 292,

die Ehre der Götter; und darum ist sich alles gleich, was nur ein Leben ist, in der göttlichen Welt, und es gibt in ihr nicht Herren und Knechte. Es leben umeinander die Naturen, wie Liebende; sie haben alles gemein, Geist, Freude und ewige Jugend¹⁷⁾.

죽어가는 女人의 입에서 주검을 하나의 存在의 連續임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이 될지에는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存在하는 것으로 充分하다. 이것이 神의 名譽이다. 그리고 自然속에서는 모든것이 同等하다>고 함으로써 Hölderlin의 回歸說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Hyperion의 意志는 市民的인 理想을 指向하지 않았다. Goethe는 Wilhelm으로 하여금 市民的 表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젊음이 꿈꾸는 理想主義에의 憧憬을 外部와 접촉하여 社會的인 實證을 안겨 줌으로써 젊은 날의 꿈의 虛實을 體驗하고 市民的인 實相을 把握하게 하였지만 Hölderlin은 Hyperion으로 하여금 人類의 理想을 自覺하는 形而上學的인 意志를 갖도록 하였다. Hyperion을 그리스의 青年으로, 그리고 舞台를 그리스로 선택한 理由 역시 思惟의 展開를 위해 그리스는 가장 적절한 背景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1770年代의 그리스는 이미 近代文明에서 落後된 곳이며 따라서 近代的인 市民的 理想像을 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다. Hölderlin은 古代 그리스의 偉大함을 Hyperion으로 하여금 直觀하게 하고 퇴폐한 當時의 그리스를, 土耳其의 壓政에 시달리는 祖國을 救援하는 現實的인 問題를 提起하고 있다. 그러나 이 現實的인 問題의 解決을, 艱박하고 迫力이 넘치는 드라마틱한 行動을 止揚하고 Hölderlin은 조용히 그리스人의 人間性, 即 Heras의 精神을 追求하고 있다. 그는 황폐한 그리스의 現實을 古代의 그때와 같이 위대한 英雄의 힘으로써만 救援되어질 것을 強調하고 있다. 勿論 이 英雄이란 神과 自然과 和合한 人間, 即 Heras의 精神의 人間이며 황폐한 그리스는 단순한 그리스만이 아니라 타락한 獨逸을 포함한 世界의 表象인 것이다. 그러므로 Hölderlin이 말하는 그리스의 自由와 平和는 곧 人類理想의 實現과 直結하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 Hyperion의 一句에서 Hölderlin의 理想을 볼 수가 있다.

Daß nur du mir ewig gegenwärtig wärest, mit allem, was dir verwandt ist, trauernder Halbgott, den ich meine! Wen du umgibst, mit deiner Ruhe und Stärke, Ringer und Kämpfer, wem du begegnest mit deiner Liebe und Weisheit, der fliehe, oder werde, wie du! Unedles und Schwaches bsteht nicht neben dir¹⁸⁾

Wilhelm의 演劇에의 投身은 Maliane와의 戀愛가 그 Motive로 되어 있으나 Goethe의 意圖는 演劇은 市民社會에서 市民的 藝術로서 受容되는 點에 있었다. 가령 Wilhelm이 Hyperion이었다고 하면 이미 그는 市民的 氣質 때문에 形而上學的인 孤獨 속에 질식해 버렸을 것이다. 演劇은 市民에 대하여 才能과 個性의 制約을 벗어나서 自由롭게 發展시킬 수 있는 藝術世界인 것이다. Wilhelm은 演劇을 통하여 여러 階層의 人間과 接할 수 있었고 또한 集團의 生活에서 人間의 外的인 것과 內的인 것을 經驗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Wilhelm은 市民的 人間像을 부각하기 위한 遍歷이었던 Bildung의 修練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Wilhelm Meister는 教養小說로서 成功한 作品이며 Bildungsroman의 典型的인 小說이라고 하겠다. Dilthey의 讚辭를 들어보면 :

“Höchstes Glück der Erdenkinder” ist die “Persönlichkeit”, als einheitliche und feste Form des menschlichen Daseins, Nie ist dieser Optimismus der persönlichen Entwicklung, heiterer

17) Ibid. S. 237.

18) Ibid. S. 130.

und lebenssicherer ausgesprochen worden als in Goethes Wilhelm Meister: ein unvergänglicher Glanz von Lebensfreude liegt auf diesem Romane und denen der Romantiker¹⁹⁾

Hyperion의 遍歷은 스승 Adamas에 依한 그리스 精神의 確立에 있었다. 古代 그리스는 神의 叡智를 받고 自然의 靈氣를 받아서 그 위대한 그리스를 創造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人間은 神에 歸一함으로써 神의 힘을 가지며 自然에 歸一함으로써 自然의 雄大한 힘을 누리게 됨을 일컫는다. 이것이 人間이 神과 自然과의 和合이며 이 調和의 精神이 그리스의 精神이며 이런 人間이 곧 英雄인 것이다.

Alabanda와의 만남은 이러한 內的 慾求의 充足이었지만 그와의 訣別은 Hyperion의 人間性이 너무 潔白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Alabanda의 革命兒의 氣質이 Hyperion의 友情을 받아 드리기에는 그 友情의 內面性은 너무나 形而上學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訣別은 Wilhelm이 市民社會에서 經驗하는 生存을 위한 對立과 葛藤에 比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破局인 것인가

Hyperion은 Diotima에게서 美의 理想을 發見한다. Diotima는 美와 平和의 完全한 모습을 具現한 女人像이었다. 그러나 Hölderlin의 Diotima는 決코 Venus와 같은 美를 부각시키지 않았다. Hölderlin은 Diotima를 美의 象徴, 美의 化身으로 찬양하였고 그것은 女人의 內面에서 흘러나온 精神의 아름다움임을 Hyperion의 讀者는 吟味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내 앞에서 있었다. 變함없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가만히 微笑를 담은 完成의 모습으로서 있었다. 이 世上의 모든 憧憬, 모든 꿈을, 아아 清新한 아침에 靈氣로 가득찬 하늘에서 守護神에 의하여 豫言되는 모든 것은 여기 이 한 사람의 조용한 精神속에 表現되어 있었다.>²⁰⁾

우리는 Hölderlin의 이 表現에서 Diotima를 天使로서 推想할 수 있으며 또한 그녀의 容貌은 Mona Lisa와 같은 아름다움을 聯想할 수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Wilhelm이 女優 Maliene에 대해서 이러한 描寫를 하였다면 오히려 俗되고 얼마나 천박할 것인가?

Wilhelm은 故鄉으로 돌아 갔다. 그의 遍歷에서, 아니 健全한 市民性을 위한 修業을 마치고, 그는 市民이란 自意識에서 도피하였다가 結局 市民의 限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도리어 새로운 市民의 얼굴이 되돌아 온 것이다. 말하자면 自身の 成長을 위하여 自身이 마련한 修練을 끝마친 것이다. 그는 이로써 人生의 意義를 깨닫고 眞實로 人生을 살 줄 아는 教養人이 된 것이다.

그러나 Hyperion은 思惟의 世界에서 行動의 世界로 轉換한다. 그는 古代英雄들의 後裔 답게 祖國의 解放을 위한 勇士가 되어 戰場에 參加한 것이다 Hölderlin은 그의 Tübingen 時節에 佛蘭西 革命에 얼마나 열렬한 갈채와 期待를 보냈던가!²¹⁾ Hölderlin은 當時 Stift에서 自由의 隊列에 적극 參加하지 못하였기에 그리스의 獨立戰爭에는 Hyperion을 出征시켰는지 모른다. 그러나 結果는 虛無한 것 뿐이었다. 그는 몸과 마음에 傷處만 안고 돌아왔다. 戰爭이란 悲慘을 目擊하였고 더구나 이런 渦中에서도 兵士들의 非人間性에 견딜 수가 없었다. 祖國의 自由와 平和를 위한 理想이 缺如된 兵士들, 그들의 손에 武器가 들려 있어도 그들의 精神에 武器가 없어서야 勝利란

19) *Ibid.* S. 250.

20) *Ibid.* S. 180.

21) Hölderlin은 Stift時節 Hegel, Schelling 등 學友들과 佛蘭西革命을 새로운 世界의 햇불로서 받아들이고 革命의 成功을 熱望했다. 佛蘭西革命은 이러한 意味에서 Hölderlin 思想에 커다란 影響을 끼친 것이다. Hyperion의 그리스 革命의 虛構는 이 影響이라고 말하고 있다.

있을수 없는 것이다. 결국 Hyperion은 이렇게 말한다. <도적단에 의하여 낙원을 건설하려고 하였으니 그것은 애당초 가당치도 않은 계획이었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지요>²²⁾하고, Hölderlin이 希求하는 英雄은 暴力이 아니었다. 佛蘭西 革命의 失敗가 그랬듯이 理想은 暴力에 依하여 爭取되지 않는 것을 體驗한 것이다. Hyperion은 Diotima에게 탄식한다.

〈Ach! ich habe Dir ein Griechenland versprochen und Du bekommst ein Klage lied nun dafür.〉²³⁾

以上에서 小説 Hyperion을 Bildung 또는 Ausbildung의 立場에서 考察하여 이것이 Bildungsroman과 어느 程度의 關係를 지을 수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그 結果 小説 Hyperion은 Bildungsroman의 屬性과 本質의 으로 相異한 몇가지 點을 抽出할 수 있었다. 첫째 Hyperion은 市民에 대한〈教養〉으로 전혀 可當치 않은 小説이다. 그의 主題는 市民이 아니며 人間의 存在인 것이다.

둘째, 教化의 問題에 있어서도 同質性을 發見할 수가 없다. Hölderlin은 世界의 理想을 깨달고 世界의 指向을 宇宙의 根本的인 秩序속에서 究明 하려고 하는 〈哲學的 思惟〉을 形象化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核心的인 準據가 되는 것은 作者인 Hölderlin의 主題 意識에 있다. Hölderlin은 Hyperion을 市民의 教養이나 教化의 目的이 아니라 自身의 思惟에 依한 思想의 形象化였다. 古代 그리스 的 成立에서 그 人間, 그 社會, 그 文明의 形成의 根幹에 흐르는 理想을 밝히고 近代史의 志向을 잃은 精神을 救援 하려는 것이 作者의 主題 意識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作者는 Hyperion의 序文에 〈내가 두려워 하는 點〉이라고 明示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指針書 처럼 읽어, 거기에 내포된 사상적 내용에 너무나 마음을 쓰지 않을까〉하는 點과 〈또한 그 반대로 이것을 너무 흥미 본위로 가볍게 취급하지 않을까〉²⁴⁾하고 두 가지 對立의인 立場을 아주 逆說의 으로 披歷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Hölderlin이 Hyperion에서 〈思想的 內容〉을 얼마나 깊이 意識하였으며 또한 그 配慮가 어떠한지 알 수 있겠다.

小説 Hyperion은 그러면 어떤 性格의 小説이라고 할 것인가? 하나의 小説作品에 對하여 반드시 類型的인 命名이 必要한 것인가는 論外로 하고 命名하는 立場에 있다고하면 小説 Hyperion을 教養小説 (Bildungsroman)이라고 하기보다 哲學小説 (Philosophischer Roman)이라고 하는 것이 이 小説의 性格 即 思想的 內容 (fabula poet)²⁵⁾에 대하여 直說의이고 더 積極的인 理解作用을 해 주리라고 判斷한다.

3 哲學小説로서의 Hyperion

Hyperion을 教養小説로 보는 通說에 대하여 哲學小説이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이 小説의 性格을 明示해주는 直說的인 genre로 보는 筆者의 見解를 위하여 Hyperion이 哲學小説이란 論據를 提示하고자 한다. 哲學小説 (der philosophische Roman)이란 전혀 새로운 述語가 아니며 또한 小説 Hyperion에 대하여 전혀 生疎한 指稱도 아니다. W. Dilthey는 小説 Hyperion에 대해 Bildungsroman이라고 하면서 또한 der philosophische Roman의 一面을 말해주고 있다. 다만 Dilthey의 論及에는 Hyperion을 Bildungsroman이라고 明白하게 決定을 내리고나서 Hyperion을 다

22) Ibid. S. 276.

23) Ibid. S. 125.

24) Ibid. S. 193.

25) Ibid. S. 125.

26) 哲學小説이란 말은 Dilthey가 Hyperion을 Bildungsroman이라고 할 때 이미 함께 指稱하고 있다.

른 教養小説, 이를테면 獨逸의 傳統的인 教養小説과 <無關한 새로운 樣相이 그의 經驗에 依하여 展開되었다>²⁷⁾고 하는 觀點을 指摘하는 데 이 述語가 쓰이고 있음에 不遇하다. 그러니까 Dilthey의 論說에는 Hyperion을 教養 小説이라고 보는 立場에는 조금도 變함이 없고 다만 Hyperion의 哲學的인 性格을 전혀 排除할 수 없었던지 극히 消極的인 意味로서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Hyperion에 대한 全體的인 論證에 있어서는 哲學的인 概念의 定立을 회피하면서도 部分的인 問題, 이를테면 小説 Hyperion에 登場하는 Alabanda에다 Fichte의 面貌를 比喩했는가 하면 Hyperion의 文體에 대해서 <그의 哲學의 最上에 이르는 概念에 대한 象徴>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philosophisch란 形容詞를 자주 쓰고 있다. 여기에 文體에 對한 그의 말을 引用하면

Es ist das eigenste Kunstmittel Hölderlins. Der Rhythmus in der Sprache, in der Gliederung der Tragödie ist für ihn Symbol für den letzten und höchsten Begriff seiner Philosophie – den Rhythmus des Lebens selbst. In ihm sah der Dichter den Ausdruck für das Gesetz in der Bewegung des Lebens, wie Hegel in dem diarektischen Fortschritt des Begriffe dies Gesetz gefunden hat.²⁸⁾

生の 哲學者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W. Dilthey이지만 文學研究으로서 獨逸文學에 남긴 功獻은 매우 크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哲學者라 부르고 文學批評家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이 Hölderlin의 文學이 哲學 그것이라 할지라도 Hölderlin을 詩人으로 보는 바와 같이 Hyperion이 哲學的 思惟의 形象化된 作品이라 할지라도 역시 小説로서 받아 들어서는 固定觀念이 우리들에게 作用하고 있다고 하겠다.

現代에 와서 文學은 그 樣相이 細分化되어 가고 있다. 傳統的인 類型을 지키고 따르던 오히려 作品의 理解를 모호하게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教養小説>이란 類概念 속에 <哲學小説>을 包含 시키기보다 차라리 分化하여 그 作品이 지닌 特性을 端的으로 表出하게 하는 것이 利로운 方法이 될 것이다. 이렇게 Hyperion을 哲學小説로 認識하게 함으로써 Hyperion의 弱點이라할 수 있는 構成의 單調로움이나 Thema의 難解性이 어느 程度 說得力을 갖게 되고 小説 Hyperion에 대한 作品의 理解를 촉진 할 수 있는 素地가 넓어질 것이다.

그러면 Hyperion의 哲學的인 要件은 무엇인가? Hölderlin이 그리스를 Hyperion의 舞台를 選擇한 것은 小説的인 配慮에서가 아니라 Hyperion의 主題가 思想의 傳達로서 設定 되었기 때문이다. 即 그리스는 哲學과 思想의 發祥地 일뿐 아니라 Hyperion의 素材를 이루는 神과 自然과 英雄, 그리고 精神이 그리스 속에 고스란히 所藏되어 있고 또한 Hölderlin이 言語보다 더 象徴的으로 驅使하고 있는 思想의 表象인 神話가 바로 그리스에 所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위에 古代 그리스의 찬란한 文明과 近代의 荒弊한 그리스를 對照할 수 있어서 歷史의 明暗을 效果的으로 叙述할 수 있는 舞台가 바로 그리스이기도 한 것이다. Hölderlin은 序文에서 <Hyperion에 가장 적합한 場所>라고 밝히고 있다.

Der Schauplatz, wo sich das Folgende zutrug, ist nicht neu, und ich gestehe, daß ich einmal kindisch genug war, in dieser Rücksicht eine Veränderung mit dem Buche zu versuchen, aber ich überzeugte mich, daß er der einzig Angemessene für Hyperions elegischen Charakter wäre,

27) *Ibid.* S. 262.

28) *Ibid.* S. 261.

und schämte mich, daß mich das wahrscheinliche Urteil des Publikums so übertrieben geschmeidig gemacht.²⁹⁾

그는 Hyperion의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아니 Hyperion을 통하여 그의哲學的 思惟를 形象化 하기 위하여 얼마나苦心하였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들 수 있는 것은 Hyperion의 形式에 대한 것, 卽 書簡體에 對한 問題이다. 그런데 이 問題는 本論稿의 중요한 部分이어서 한 章을 마련하여 詳論하고자 한다. 다만 Hyperion을 書簡體로 쓴 根源의인 理由가 哲學小說을 쓰려는 Hölderlin의 意圖에 基因한다고 말해 둔다.

다음에 小說 Hyperion의 權造的인 問題를 들 수 있다. 作品 Hyperion은 이것이 完璧한 小說이란 觀點에서 본다면 지극히 單調로와서 未洽하기 이룰데 없다. 舞台와 人物, 그리고 몇가지의 狀況等으로 小說의 가장 最小限의 要件만을 갖추고 있을 뿐, 人物들의 움직임이라든가 狀況의 展開 같은 것은 거의 靜止된 霧圍氣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테면 Diotima와의 戀愛, Alabanda와의 革命的인 交友, 더구나 그리스 戰場을 上程해 놓고서 거기에 딸아야 하는 迫眞感 같은 것은 모두 蒸發해 버리고 무거운 沈默이 감돌 뿐이다. 戰爭의 狀況을 설명하는 5편의 書簡은 거의 이렇게 單調로운 것이다. <화산은 폭발하였다. 코론과 모돈에서 터어키군은 포위 되었고 우리들은 進軍하고 있다>고 두 귀절 다음엔 <인간은 원래가 살림의 사슴과 같이 행복하였던 사실>,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원시시대에의 동경이 가득차 있었다.⊃>30)>에서 戰爭의 面貌보다 想念이 더 크다. 다음 사연에도 역시 <우리들은 소규모 전에서 세번 승리를 거두었다. 양군의 병사들이 번개처럼 뒤엎혀지고 불꽃이 되었다>하고 절박한 戰況을 이어가는 듯 하더니 <탄사는 끝났다. 나의 부하들을 약탈하고 살육한다> <참화는 너무 심하다>³¹⁾ 등등 戰爭을 思惟의 對象으로써 Hölderlin은 Hyperion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迫力이 要求되는 露土軍의 海戰의 場面 역시 그런 식이다.

이렇게 해서 그는 負傷하였고 實戰의 狀況은 매듭이 지어졌다. 戰爭小說의 場面 描寫라기보다 아이들의 戰爭놀이 만큼이나 寫實性이 없는 戰況이 아닌가. 이러한 表現들은 그의 自然에 대한 描寫나 思想的인 述懷와 對照해 본다면 엄청난 격차를 빚고 있다. 結論的으로 말하면 그는 小說의인 感覺이나 技巧에 대해서는 故意的으로 外面하고 오직 思惟의 形象化만이 그의 意圖였던 것이다.

이러한 Hölderlin의 小說作法은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일까. 결코 그의 小說的인 才能의 不足에서 빚어진 虛實탄은 아니다. Hölderlin이 銳利한 詩的 才能을 가진 詩人이라 해서 小說에는 虛弱하다고 할 수 없다. 小說의 技巧은 詩作 보다도 鈍重한 一面이 있다. 筆者는 小說 Hyperion에서 보여주는 小說的인 모든 弱點 역시 Hölderlin이 意識한 技巧라고 생각한다. 그는 Hyperion에서 小說的인 技巧을 排除함으로써 Hyperion을 一般的인 小說의 image로 부터 脫避하려는 意圖라고 말할 수 있겠다. Emil Steiger는 Hölderlin의 詩作法에 對해서 그의 <Grundbegriffe der Poetik>에서 이와 같이 말 하고 있다.

Das Leben aber spendet die Seele. Sie ist die Fülle des Lebens selbst, seine unmittelbare

29) *Ibid.* S. 125.

30) *Ibid.* S. 299.

31) *Ibid.* S. 292.

32) *Ibid.* S. 301.

33) *Ibid.* S. 302.

Erschlossenheit, der nicht erworben, ein Gnadenschatz, der nicht erworben der als Geschenk aus wesentlich unbekannter, mit keinem Wort der Sprache zu nennender Hand empfangen wird. Aus dieser Fülle des Lebens muß sich nun zwar der denkende Geist erheben und über alles, was ihm geschenkt ist.³⁴⁾

Hölderlin은 宇宙와 世界와 生の 觀念을 叙述하려는 小説, 그러한 哲學的인 思惟를 虛構化하려고 한 때문에 戰爭과 友情과 戀愛와 같은 小説的인 素材를 가지고서 小説다운 이야기 (Handlung) 를 그는 회피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詩人인 Hölderlin이 특히 哲學에 기울이는 緣由를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 Hölderlin이 哲學에 대한 깊은 關心은 일찍이 少年期부터 있었다. 그는 Tübingen 의 Stift 時節에 Hegel, Schelling 등과³⁵⁾ 가장 親近하게 지내면서 哲學上의 여러가지 問題에 온 情熱을 쏟아 討論하고 工夫하였다. 이들은 Leibniz, Spinoza, Kant, Jacob, Herder, Schiller 等に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神의 不滅의 問題, 信仰의 神과 理性과의 對立關係, 이런 것들이 그들의 主된 Thema 였다고 傳記에 具體적으로 言及하고 있다. 여기에 Hölderlin이 Hegel에게 보낸 1794년 7월의 편지에서 拔萃하여 보기로 하겠다.

Ich bin gewiß, daß Du indessen zuweilen meiner gedachtest, seit wir mit der Lösung-Reich Gottes! voneinander schieden. ... Meine Beschäftigung ist jetzt ziemlich konzentriert. Kant und die Griechen sind beinahe mein einzige Lektüre. Mit dem ästhetischen Teile der kritischen Philosophie such ich vorzüglich vertraut zu werden... Die Bergbewohner sind, wie überall, etwas barsch und einfältig. Übrigens mögen sie manche gute Seite haben, die unsere Kultur vertilgt hat.³⁶⁾

몇 句節만 引用하였지만 이 속에서도 Hölderlin의 思索的인 生活은 뚜렷하게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에 〈山地의 人間들이 文化와 격리되어 있는 좋은面〉에서 Hölderlin은 近代의 文化를 얼마나 싫어 했는지, Hyperion의 隱遁生活의 辯을 보는 듯하다.

實上 Hölderlin의 哲學에의 關心은 보통 以上の 것이었다. 그는 詩人으로서 前途가 여의치 않았을 때 美學으로 立身할것을 決心한 적도 있었다. Schiller에게 大學의 講義를 청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美學과 哲學에 關한 論文을 쓰기도 하였다. 여기에 1801年 6월에 Schiller에게 보낸 편지의 몇 귀절을 보면 그의 哲學의 研究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겠다. 그가 大學講堂에 나서고자 한 Hölderlin의 自信을 짐작하게 한다.

Ich hatte mir längst die Hoffnung gemacht, Sie einmal wieder an mich erinnern zu dürfen, Verehrtester! und ich wollte nur zuvor noch einige Papiere ausarbeiten, um Ihnen diese vorzuliegen... Auch bin ich veranlaßt worden, besonders über die notwendige Gleichheit notwendig verschiedener höchster Prinzipien und reiner Methoden manches zu denken, was im ganzen Zusammenhange und mit den rechten Grenzlinien dargestellt, wohl auch einiges Licht über den Bildungskreis und die von ihm ausgeschlossen Gebiete verbreiten könnte... Jena ginge und da versuchte, den größeren Teil meiner Zeit zu Vorlesungen zu verwenden, die mir, so viel ich weiß, zu halten erlaubt sind.³⁷⁾

34) Emil Steiger: Grundbegriffe der Poetik, Atlantis Verlag Zürich und Freiburg i. Br. 1968, S. 212

35) Hölderlin, Hegel, Schelling에 對한 友情의 내용은 三人의 傳記에 꼭 같은 記錄이 있다고 한다.

36) Herausgegeben von F. Beißner und J. Schmidt: Hölderlin Werke und Briefe, Band II, Insel Verlag Frankfurt am Mein 1969 S. 825

37) *Ibid.* S. 937~939.

이러한 一聯의 事例에 비추어 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傳統的인 意味의 詩人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이야기를 쓰는 詩人으로서가 아니라 生의 體驗을 통하여 思惟한 哲學을 記述하려는 詩人이 되려고 하였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眞正한 詩人은 哲學을 쓰는 詩人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Hölderlin은 그러나 詩人이기에 自身의 哲學的인 思惟를 體系를 갖춘 哲學의 書로써가 아니라 그리스의 風土를 背景으로, 그리스의 現實을 舞台 위에, 그리고 그리스의 人物을 主人公으로 하여 過去와 現在의 生의 樣相과 未來에의 意志를, 그리고 人類의 理想을 形象化 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 作業을 진실로 詩人의 使命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F. Beißner 教授는 Hölderlin이 生의 解釋에 대해서, 生의 樣相에 대해서 그리고 生의 指向的인 未來像에 대해서 追求하여 이를 詩文學으로 形象化한 것이고 이를 보다 哲學的으로 發展시킨 것이 Nietzsche의 Zarathustra³⁸⁾라고 指摘하고 있다.

Nietzsche는 일찌기 Hölderlin에게서 그의 哲學의 世界를 認識하고 있었던 것이다. 17歲의 學生時節에 가장 愛誦하는 詩人을 말하라고 했을 때 그는 서슴치 않고 Hölderlin을 選擇하였다고 하는 逸話는 결코 우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겠다. Nietzsche는 그後 Hyperion의 思想에 莫重한 影響을 받았는가 하면 그의 天才的인 言語의 驅使와 音樂的인 文體의 技巧 역시 Hölderlin의 至高한 遺産이었다고 해서 지나칠 것은 없다. W. Dilthey는 이에 대하여 :

Und als er im Zarathustra dichterische seine Lebensansicht entwickelte, wirkte der philosophische Roman Hölderlins von der Grundidee bis in die Form, ja bis in die einzelnen Worte. Der Stil beider Schriftsteller ist musikalische. Sie schreiben beide für Leser, die nicht. "bloß mit dem Augen" lesen. Sie prägen neue Worte für das, was sie aussprechen wollen, aus Scheu vor abgegriffenen Redewendungen.³⁹⁾

Hyperion은 이와같은 見地에서 단순히 青年의 成長을 통하여 模範的인 人間像을 確立하려는 教養小說의 範疇를 초월하여 人間의 存在의 根源과 그 認識을 小說的인 構圖와 體驗을 통하여 우리에게 示顯하여 준 本格的인 哲學小說이라고 함이 Hyperion의 理解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哲學小說의 모든 因子를 계승하고 오늘날 哲學小說이라 하면 누구나 指稱할 만큼 되어 있는 것이 Nietzsche의 여러 著作이고 특히 小說的인 虛構性을 가진 Zarathustra는 哲學小說의 象徴처럼 認識되고 있다. 이제 小說 Hyperion이 哲學小說로서 定立되면 Zarathustra는 Hyperion 다음을 잇는 哲學小說의 系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書簡體 形式이 Hyperion에 미친 効用性

Hölderlin은 Hyperion이 出版된 完稿까지 모두 5篇을 썼었다. 그 가운데 Tübingen 學生時節에 쓴 첫 草稿를 除外하고 4篇이 傳해지고있다. 이들 4篇은 각각 特色이 있고 그 內容面에서도 差異가 있다. 그런데 세번째에 해당하는 韻文稿 (Handschriftlich überlieferte Bruchstücke)와 네번째인 Hyperion의 青年時代 (Die Jugend Von Hyperion)를 除外하고 모두 敘述의 形式을 書簡體로 하고 있는 點이다. 書簡體는 勿論 當時 Herder나 Goethe를 따라 즐겨 小說이나 Essey 집

38) Beißner, Iltans-Weimer: Hölderlin-Nietzsche, Insel Verlag, Frankfurt a/M1904, S. 316.

39) Ibid. S. 262.

지어 評說에 이르기 까지 널리 活用되고 있었지만 Hölderlin은 小說 Hyperion을 결코 流行的인 方便으로 쓰지 않았다. 그는 書簡體로 哲學的인 素材를 다룸으로써 보다 效果的으로 表現하려고 한 것이다. 이것은 Hölderlin이 왜 書簡體의 形式을 썼는가에 對한 單純한 解明이 아니고 Hyperion은 왜 書簡體를 쓰지 않을 수 없었는가, 또는 書簡體를 씀으로써 Hyperion의 作品上에 어떠한 效用을 얻으려 하였는가. 다시 말하면 Hyperion의 쓴 書簡體의 形式이 다른 作家에 依해 쓰여진 書簡體 小說 처럼 단순히 嗜好에 依한 敘述이 아니고 小說 Hyperion을 書簡體로 쓰야 했던 作品上의 機能을 살펴야 할 問題인 것이다. 이것은 Hyperion의 小說的인 技巧을 극히 弱화시킨 理由가운데에 敘述形式을 書簡體를 선택한 點도 있는 것이다.

小說 Hyperion의 構成은 獨逸에 있는 親舊 Bellamin에게 보내는 60篇의 書簡으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Diotima에게 보낸 13篇과 Diotima가 Hyperion에게 보낸 4篇이 있으나 이것 모두 Bellarmin에게 公開하는 方法을 取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小說은 完全히 Hyperion이 쓴 書簡體 小說(Briefform)이다.

Hyperion의 書簡體는 다른 書簡體 小說과 다른 特徵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書簡의 性格은 受信人에게 直說的이고 따라서 時間的으로 同時性을 갖게 해 주는데 Hölderlin은 60篇의 書簡을 Hyperion의 發展經過와 並行해서 써보내진 書簡들이 아니고 主人公 Hyperion의 青年時節의 體驗이 모두 完了되고나서 먼 훗날 隱遁生活에 들어가서 비로소 親舊 Bellarmin에게 過去의 體驗을 現在의 體驗의 時點에서 쓰고 있다. 그러므로 自身の 體驗的인 事例를 回顧하는 書簡文인 것이다. 그러므로 Hyperion의 書簡에는 時間的인 二重性이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書簡文은 보통 그것을 쓰고 있는 時點을 中心으로 過去之事에서 未來에의 展望까지를 포용할 수 있으나 記述하는 時點이 中心이 되어 過去와 未來가 同時性을 가지고 現在로서 共感을 불러 일으키는 作用이 書簡體의 特性이라 하겠다. 그러나 小說 Hyperion에 있어서는 主人公 Hyperion이 體驗하는 時間과 모든 體驗이 끝나고 回顧하여 記述할때까지의 經過한 또 하나의 時間이 생겨난다. 우리는 書簡體 小說로서 成功하고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Goethe의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와 比較하면 두 作品의 性格이 相異하다는 것을 쉽게 把握할 수가 있다. 即 Werther은 主人公이 親友 Wilhelm에게 보낸 편지로서 約 1년7個月 사이의 時間속에 登場人物들의 身邊에 일어난 戀愛事件의 推移와 그때의 心境을 記述한 것이고 또 日附가 明記되어 있다. 그리고 이야기의 顛末을 도우기 위하여 編者가 蒐集한 여러가지 補充資料를 挿入하고 또한 이로써 主人公의 自殺에 이르는 心理的인 變化를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小說 Werther은 經驗의 發展과 並行하여 Werther의 書簡도 같이 發展해 간다. 主人公이 그때의 身邊의 일과 心境을 主觀的인 立場에서 直說的으로 敘述하고 있어 다른 書簡體 小說과 다르지 않다 하겠다.

이에 對하여 Hölderlin의 書簡은 Hyperion의 젊은날의 理想, 英雄을 憧憬하고 英雄의 偉業을 再現해 보려는 青年의 온갖 體驗이 終結된 後 空間的인 變化와 時間의 오랜 經過가 있었다. 그 時差 속에 Hyperion은 生과 體驗을 觀照할 수 있는 境地와 이를 客觀的으로 評價할 수 있는 第三의 經驗을 갖게 된다. 젊음의 意志와 生의 意志, 世界의 變化와 時代의 推移를 차분히 經驗하고서 그는 비로소 隱遁生活로서 安住하였다. 그러므로 Hyperion의 現在는 過去의 體驗을 省察을 통한 再經驗의 現在이며 客觀化된 歷史的 現在인 것이다. 그러므로 Hyperion에 記述된 書簡은 青

40) Hyperion은 小說의 經驗과 Bellarmin에게 보낸 이 書簡의 時間의 差은 무릇 30年을 헤아린다.

年 Hyperion의 體驗이 아니고 隱遁者 Hyperion의 體驗의 敘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Hölderlin은 이와 같이 Hyperion의 體驗을 時間的으로, 空間的으로 먼 距離에 서서 客觀化된 ich가 當時의 ich가 되어 過去의 狀況을 現在로서 敘述하고 있는 것이다. Hölderlin은 Hyperion을 통하여 時間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Aber was kann ich dafür, daß mein Gedanken schneller ist wie die Zeit? Ich wollte so gern, es wäre umgekehrt, und Zeit und die Tat überflöge den Gedanken und der geflügelte Sieg übereilte die Hoffnung selbst.⁴¹⁾

이렇게 過去의 時間을 現在의 時間으로 共感하려 할 때 이 時間의 二重性은 깊은 意味를 지니게 된다. 말하자면 過去와 現在사이에 歷史的인 意味가 생겨난다. 敘述되고 있는 過去의 經驗속에 作用하는 時間과 敘述하고 있는 隱遁者 Hyperion에 作用하고 있는 時間 사이에는 歷史性이 介在한다는 것은 敘述되는 過去의 事件은 Hyperion에 依하여 省察되면서 敘述되는 것이기 때문에 客觀的인 立場에 있는 歷史家의 記述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主觀性을 지닌 歷史家에 依하여 歷史的인 事實을 記述하는 姿勢를 Hölderlin은 意識하였다 하겠다. 그러나 現在의 時間은 Hyperion의 內面에 흐르는 時間이기 때문에 또한 現在의 Hyperion을 支配하는 外的條件에 따라, 이를테면 現在의 感情, 現在의 狀況에 따라 多小問의 屈曲을 排除할 수 가 없다. 그러므로 結果的으로 Hyperion의 모든 體驗은 敘述하는 現在의 生活 即 體驗이 끝난 現在의 隱遁生活의 原因을 暗示하고 있는 것이다. Hölderlin은 Hyperion의 終末이 隱遁者로서 蟄居하게 된 아무런 動機와 理由를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는 Bellarmin에게 過去를 現在에 再生시킨 그 述속속에 隱遁者의 因果的인 說明이 含蓄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複合的인 意味를 지닌 時間的인 作用때문에 Hölderlin은 小說 Hyperion을 無理한 構成을 피하고 自然스럽고 自由로운 利器로서 이 小說을 書簡體로 하였던 것이다. 過去의 일, 未來의 展望을 現實的인 狀況感覺을 불러 일으키는 方法을 그는 書簡體에서 찾았던 것이다.

書簡體의 形式은 Hölderlin이 Hyperion으로 하여금 理想이 形成되어 가는 過程을, 理想의 實現을 위한 所在을 그리고 行動의 意義와 그 限界를 體驗하게 하고 그것을 現在의 隱遁 生活에서 回顧하여 生動感이 있는 現在의 話法을 가지고 Bellarmin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Hölderlin은 하나의 體驗을 認識의 次元으로 昇華시키고 內的 意志와 現實的인 隱遁者의 外的 意志의 表明을 이 書簡體의 効用에서 얻어려고 意圖한 것이다. Diotima의 죽음을 알려온 것과 Hyperion은 今後的인 行方과 슬픔을 清算하는 마음을, 生과 死의 問題를 얼마나 담담하게 슬회하고 있는지 여 기 몇 句節만 보아도 書簡體의 効用性을 把握하게 될 것이다.

Einen schönen Tod ist meine Diotima gestorben; da hast du recht; das ist auch, was mich aufweckt und meine Seele mir wiedergibt. Aber es ist die vorige Welt nicht mehr, zu der ich wiederkehre. Ein Fremdling bin ich, wie die Unbegrabnen, wenn sie herauf vom Acheron kommen, und wäre ich auch auf meiner heimatlichen Insel, in den Gärten meiner Jugend, die mein Vater mir verschließt, ach! dennoch, dennoch wäre ich auf der Erde ein Fremdling und kein Gott knüpft' aus Vergangne mich mehr.⁴²⁾

41) Ibid. S. 210,

42) Ibid. S. 239.

과거의 體驗을 時間的으로 오래 經過하면서 現在의 體驗으로 置換함으로써 그 體驗에 客觀性을 갖게 한 詩人의 意圖는 體驗 그 自體를 擴大 하려던가 그 體驗의 意義를 高調 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그 體驗에 歷史性을 부여 하려는 것이다.

비록 小說이란 虛構的인 世界를 創造하는 것이지만 Hölderlin은 Hyperion의 空間的인 外面의 體驗을 隱遁生活을 거치는 內面的인 體驗으로 昇化 시켜서 이를 歷史의 眼目으로써 Hyperion을 썼던 것이다. 換言하면 하나의 體驗 即 主觀的인 事實을 客觀的인 眼目으로써 記述하려고하는 詩人의 姿勢가 곧 歷史性이란 의미로 필자는 해석한다. Hölderlin은 Hyperion이 겪는 虛構的인 事實을 歷史家의 立場에서 서서 叙述하기 위하여 書簡體를 선택하였다고 하겠다.

Hölderlin이 이렇게 小說的인 作意를 外面하고 歷史家의인 態度로 접근한 意圖가 바로 隱遁者인 Hyperion의 哲學的 思惟를 小說化 하려고 한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小說家의 立場에서 虛構的인 世界, 創作的인 世界를 통한 小說的인 形像化으로써 自身의 哲學的인 思惟를 傳達하는 힘이 소극적어서 오히려 주어진 狀況의 虛構性을 克服하고 直接的인 傳達를 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의도에서 Hölderlin은 虛構性이 빈약한 書簡體를 써서 過去와 現在의 時間을 自由롭게 往來하면서 그의 思惟를 記述한 것이다.

5. 結 言

小說 Hyperion은 Hölderlin 文學의 中樞的인 作品이라 할수 있다. 不偶했던 生涯中에 가장 完熟期에 쓴 作品이란 것보다 完成된 오직 하나의 小說이란 點과 Schiller가 主幹하는 Thalia 誌에 斷片 Hyperion (Frgment von Hyperion)이 發表 되었던 것을 몇 篇의 改作을 거쳐서 마침내 出版하기에 이른 것이 小說 Hyperion 이기에 Hölderlin의 文學과 思想의 面目을 보여줄 수 있는 作品이라는데 더 큰 意義가 있다. 그러나 當代에서는 勿論 오랜 歲月이 지나도록 Hyperion의 價値는 땅 속에 묻혀 있었다. 그 理由는 그 時代는 아직 Goethe의 名聲이 桴桴해 있었고 浪漫主義의 前, 後期 詩人들이 舞臺를 活步하던 時期였다. 그러나 그것은 文學史의 潮流이고 Hölderlin 文學은 그 時代와 社會에 理解될 수 없는 未來的인 作品이었던 것이다.

Hölderlin 文學은 철저히 孤獨했던 그의 人間과 같이 當時의 世界와 妥協 할 수 없는 文學이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現實的인 共感의 글을 쓰는 詩人, 이룰테면 古典主義나 浪漫主義와 같은 時代 精神에 呼應하는 作品을 外面했던 것이다. 그는 詩人의 使命을 너무나 엄숙하게 생각하였다. 그는 文學의 世界는 至高의 理想으로서 現世의 共感和 理解의 世界보다 未來的인 世界를 憧憬하고 指向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古代 그리스의 世界의 復歸였던 것이다. Heras는 人類의 理想인 自由와 平和가 原初的인 人間의 生命과 같이 살고 있기에, 그는 自由를 위한 鬪爭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소용돌이를 拒否하는 것이다. 人間은 그러한 近視眼的인 理念으로 해서 스스로 滅亡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人間의 理想은 결국 人間의 희생 위에 세우려는 理想이기에 언제까지나 이世界에 도사리고 있는 反復의 悲劇임을 그는 苦悶한다. 이것이 그의 未來的인 世界觀이었고 이것이 Hölderlin 文學을 豫言的인 文學이 되게 하여 먼 훗날의 世代가 經驗하고 비로소 理解하기에 이르렀다. 近代와 現代에 이룰수록 混亂은 加重되면서 그는 豫言者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Hölderlin은 말한다. 人類는 共히 自然으로 가서 神을 만난다. 그리고 自然의 힘과 調和하여 비로소 우리의 理想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것은 幻想的인 것이 아니고 人間이 共히 自然的인 原初的인 人間性을 가질 때 비로소 世界의 人間은 하나의 人間으로 通하

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孤高한 理想은 비록 現實과 먼 것 같지만 現代의 機械文明 속에서도 蒼空에 뜬 달과 아기의 웃음에 同化되는 人間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Hölderlin의 自然에 依한 人生哲學은 理解 될 것이다.

Hölderlin은 이제 그 文學과 그 思想과 生涯와 그리고 한 片의 편지라도 남김없이 紹介되고 研究되어 왔다. 그러나 밝은 照明뒤에는 아직도 그림자에 가리어 있는 대목도 없지 않다. 그의 唯一한 小說 Hyperion을 Bildungsroman이라 하고 教養이란 美名에 대해서 아무런 抵抗을 느끼지 않는듯 하지만, 그러나 한 作品을 어느 類型으로 몰아 넣고 나면 草綠同色과 같이 쉽사리 그 獨自의 性向을 잃게 된다는 것을 認識한다면 한 사람의 詩人이나 作家, 그리고 그들의 作品들을 適當한 類型에 罨겨쳐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無責任한 일이란 걸 알 것이다.

參 考 書 籍

- 1) Wilhelm Dilthey: Das Erlebnis und Dichtung, B. G Teubner Verlagsgesellschaften, b. H. Stuttgart, 1957.
- 2) Gerhard Buhr: Hölderlins Mythenbegriff, Athenäum Verlag, Frankfurt AM 1972.
- 3) Hans-Heinrich, Schottmann: Metapher und Vergleich in der Sprache F. Hölderlins, H. Bouvier u. Co. Verlag-Bonn 1960.
- 4) Martin Heidegger: Erläuterungen zu Hölderlins Dichtung, Vittorio Klostermann Verlag. Frankfurt a/M1951..
- 5) B. Boesch: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in Grundzügen, 韓國獨語獨文學會譯, 서울, 1965.
- 6) Friedrich Gundorf: Dichter und Helden, Heidelberg 1921.
- 7) G. Lepper: Zeitkritik in Hölderlins "Hyperion" in Liteatur und Geistesgeschichte, Erich Schmidt Verlag. Berlin, 1967.
- 8) Pierre Bertaux: Hölderlins und Französische Revolution, Schnurkamp Verlag, Frankfurt a/M. 1969.
- 9) 韓國獨語獨文學會刊, 獨逸文學 14輯, 서울, 1973.
- 10) Ulrich Häussermann: Hölderlin, Rowohlt Taschenbuch Verlag. GmbH, Hamburg, 1964.
- 11) 小牧健夫: ヘルターリン研究, 白水社刊, 東京, 1957.
- 12) Herausgegeben von F. Beißner und J. Schmidt: Hölderlin Werke und Brieger, Insel Verlag, Frankfurt a/M. 1969. Band I. II. III.

